

## 일상생활경험을 통해 본 출소자의 현실

한 명 미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I. 연구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21세기에 범죄인에게도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어느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천부적으로 부여받는다. 헌법 제 10조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형태로의 존엄성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인이 수감 중에도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의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범죄자들이 출소 후의 재사회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최선화 외 4명, 2000).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경험이 있는 출소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들을 냉대하고 있었다.

출소자<sup>1)</sup>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비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법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출소자를 범죄자로 보고 있었고, 법무부는 출소자가 이미 범죄자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보고 있었다. 출소자가 어디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클라이언트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어디에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출소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현실 속에서 그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지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출소자들이 처한 현실과 그 현실이 의미하는 ‘지금’을 일상생활<sup>2)</sup>

- 1) 출소자: 범죄의 구성요건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범죄인(교정사회사업연구회, 1996)이었던 사람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벌의 중간지점이 되는 가출소 혹은 형이 종료되어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 2)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일상성과 생활 중 생활경험에 초점을 둔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주관적 경험(성경미, 2003 재인용; 김경동·이은주, 1999)이다.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출소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출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지금’은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가 출소자의 현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최인섭·김지선(1995)의 연구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출소자의 출소 이후의 경험에 관한 설문을 통해 출소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출소자를 이해할 목적으로 쓰여진 나호건(2002), 엄정순(2003)의 연구에서도 출소자들이 생활하는 현실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김인숙(1990)의 연구는 여성출소자의 재사회화의 성공에 영향력 있는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출소자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요소로 가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출소자의 특성들을 충분히 파악하고자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김인숙(1990)의 연구에서 재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가족, 최인섭·김지선(1995)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측면 중 통계적인 수치로 드러낼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출소자의 사회적 특성을 2002년도 범죄분석을 참고로 살펴본 결과, 전과자의 61.97%가 유배우자가 있었다. 통계를 통해 볼 때 출소자들은 유배우자로 돌아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수치였다.

<표 1> 전과자의 혼인관계

(범죄분석, 2002)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	소계	계
총범죄	774,405 61.97%	17,871 1.43%	88,398 7.07%	16,115 1.29%	896,789 71.76%	1,249,727 100.00%
형법범	325,043 56.99%	12,790 2.24%	53,420 9.36%	8,894 1.56%	400,147 70.15%	570,353 100.00%

출소자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요소는 생활수준이다. 어느 수준의 경제적 여력이 있느냐를 전과자의 생활정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과자의 생활정도는 출소자의 출소이후 생활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특성이다. 전체 전과자

1,249,727명 중 70.81%인 403,921명이 하류의 생활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로 경제적 이유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표 3> 전과자의 생활정도

(범죄분석, 2002)

	상 류	중 류	하 류	소 계
총범죄	15,139 1.12%	381,822 30.55%	852,766 68.24%	1,249,727 100.00%
형법범	7,742 1.35%	158,690 27.82%	403,921 70.81%	570,353 100.00%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발표한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박철현(2000)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경우는 절도범과 침입절도로 제한적이었다. 이견 출소 이후 경험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힌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최인섭·김지선(1995)의 연구와 상치되는 것이다. 범죄자가 범죄를 행하는 원인을 2002년 경찰에서 처리한 범죄자의 범죄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주의가 2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우발적인 경우가 18.4%,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욕이 11.0%, 사행심 11.0%, 호기심이 0.9%, 현재 당면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0.7% 순서로 나타났다(경찰청, 2002). 범죄를 하게 되는 동기를 분명하게 명시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 범죄에서는 44.7%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출소자를 어느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범죄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범죄이론은 각론상의 범죄행위 모두에 공통되는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그 일반적인 특색을 밝혀냄으로써 범죄의 일반개념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범죄이론을 과학적 현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현대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체계(frame of reference)에서 초자연적 접근을 포기하고 자연적·과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Vold·Bernard·Snipes/우범형상정책연구회, 2000).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별적인 사안들에 일관성 있는 법적용을 통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장래에 발생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범죄이론은 현재까지 수많은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전지연, 1997). 이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현재 존재하는 범죄이론은 첫째, 생물학적 이론이다. 생물학적 이론은 행위자의 생리적 구조에서 비행의 원인을 찾으려는 이론이다(최덕민, 2004 재인용; 이상현, 1997). 둘째, 범죄자들의 일탈행동을 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사회조건과 무관하게 바라보고, 단지 일탈행동을 범한 사람의 사고과정과 관련시켜 설명한다(최혜순, 2003). 셋째, 범죄자의 일탈행위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려는 접근(최덕민, 2004)으로 설명되고 있다.

### Ⅲ. 연구의 실행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을 활용하였다. 비구조화된 면접<sup>3)</sup>을 통해 출소 첫 날부터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연구과정에 들어가기 전단계인 연구를 시작한 시기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종료된 시점을 거쳐 분석을 하는 시기까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연구가 실행되었다.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이 후 연구자는 개별요약과 주제별 분류 그리고 내용별 분류 작업을 거치면서 주요 핵심 어구를 찾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과거의 경험을 끌어오고, 미래를 당겨오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출소자의 일상생활을 분석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연구의 초점을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독자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제목이 되도록(Silverman, 2000) 제목을 다시금 수정하였다. 연구실행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1단계 선행연구 고찰(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단계 연구참여자 선정과정과 초기면접(2004년 9월 30일~)
3단계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10월부터~)
4단계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과 전화면접 (2004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월 8일까지)
5단계 인터뷰와 함께 문서화 (2004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월 8일까지)
6단계 정리된 문서와 함께한 자료수집 (2004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월 8일까지)
7단계 자료요약 및 분류(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8단계 분류된 내용 분석 및 집필(2005년 3월부터 6월 6일까지)

3) 비구조화(non-standardised)된 면접은 간단한 주제 목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침서(guide)에 가까운 질문지침서를 활용한다. 목록에는 응답자(연구 참여자)에게 원하는 주제에 대한 것으로 질문방식은 자유롭지만, 적시에 민감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의 능력이 요구된다(Gilbert, N. ed. 2001. pp124).

## IV. 연구 결과

출소자의 ‘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이다.

첫째, 출소자들은 가족들의 ‘외면’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다.

둘째, 출소자들은 자립하기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었다. 출소자들은 생활공간이란 물리적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셋째, 출소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넷째, 출소자들은 생소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중교통의 이용, 은행업무 그리고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과 같은 생활 속 ‘생소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섯째, 갚아야 하는 돈으로 인해 출소자들은 또 다른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자유형이 종료되면서 부여된 권리에는 빚과 체납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눈앞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출소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남의 돈은 자립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를 더하게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주제인 ‘출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는 연구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들은 인생주기에서 ‘생활리듬’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인식은 현재의 여건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다시금 확고히 하고 있었고, 생활리듬의 차이와 함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활리듬이 옳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활리듬 즉 현대사회 시스템이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적응(이홍균, 2004)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출소자들은 자신이 범죄자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치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출소자들은 스스로 범죄자였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출소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과자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재화 하고 있었다.

셋째, 범죄의 종류와 전과자로 받았던 부당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른 ‘자신감’이 존재했다. 출소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사회로부터 수용적인지 덜 수용적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다시 출소자가 된 이 후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여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었다. 범죄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었고, 잃을 수 있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범죄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출소자들은 범죄의 성공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었다.

## 제 2 절 실천적 함의

연구자가 본 연구를 통해 정리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소 전 교정시설과 출소 이 후 사회에서 가족들과의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자립하기 힘든 출소자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인생주기를 고려한 하여 생활리듬에서 느끼는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들이 경험하는 전과자라는 자동적인 인식을 정정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교정사회사업 연구회 (1996). 교정사회사업.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김인숙 (1990). 여성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나호건 (2002).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 (2003). 범죄분석.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범죄와 형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박철현 (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경미 (2003). 정신분열병을 가진 대학생의 생활경험.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엄정순 (2003). 출소자 사회복귀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흥균 (2004). 소외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전지연 (1997). 법과 사회범죄. 한림대학교출판부.
- 최덕민 (2004). 청소년 비행에 대한 소년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최인섭·김지선 (1995).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혜순 (2003). 청소년비행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청소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 Vold, Bernard, Snipes/우범형사정책연구회 (2000). 범죄학이론. 길안사.
- Gilbert, N. ed. (2001). Research Social Life [2nd ed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Silverman, D. (2000). Doing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